

▶ 주식선물시장 활성화 추진

☏ 금융위 자본시장과 윤준구 사무관 (2156-9872)

1. 건의 배경

-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 과세조치('12년) 등 이후 주식 현·선물 차익 거래 시장 크게 위축된 측면*

* 차익거래 규모(조원) : ('11년) 114 ('12년) 69 ('13년) 20 ('14년) 9.4

- 이에 따라 (i)차익거래와 연계한 주식현물거래 수요 위축, (ii)선물 등 파생 상품 거래규모 축소 (iii)주식시장 균형가격 회복능력 저하 등 문제점

⇒ 주식 현·선물 차익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육성을 통해 자본 시장 활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

2. 제도개선 계획

- ◇ 현·선 차익거래의 대안으로서 개별종목 선물시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「지수 선물·개별종목선물 차익거래 시장 활성화」 추진



① 개별 주식선물 종목수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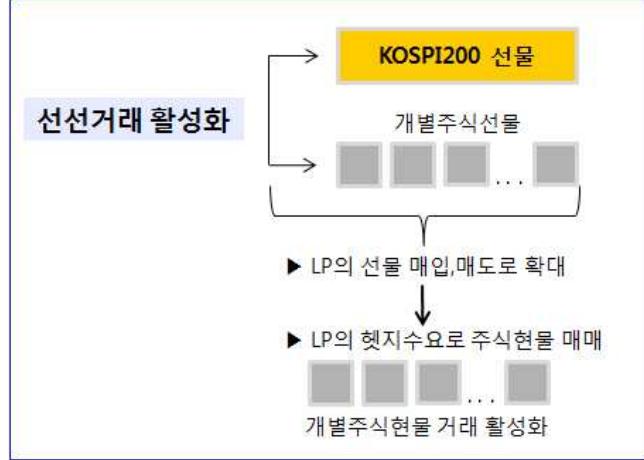
- 선물이 거래되는 주식 종목수(현재 89개)의 대폭 확대 추진
- 개별선물 바스켓으로 KOSPI 200 선물 추종이 가능하게 되어 ‘현·선 차익거래와 유사한 ’선·선 차익거래‘ 활성화 가능

② 개별 종목 선물 복수 LP 허용

- 현재 종목당 하나의 증권사만 시장 조성자로서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충분한 시장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 극복

3. 기대 효과

- ① 선·선 차익거래 활성화시 현·선 차익거래와 마찬가지로 선물거래 뿐만 아니라 LP를 통해 현물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
 - 선물거래 활성화시 개별종목 선물에 참여하는 LP는 활발하게 선물 매입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포지션 햅지를 위한 현물 매매를 수반



- ② 차익거래의 활성화로 주식시장이 균형가격에서 벗어날 경우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 제고

③ 개별종목 투자시 위험관리 수단 제공

- 선물 종목수 및 선물시장내 유동성 확대로 선물거래를 통한 주가하락 위험 헛징 여력 확대